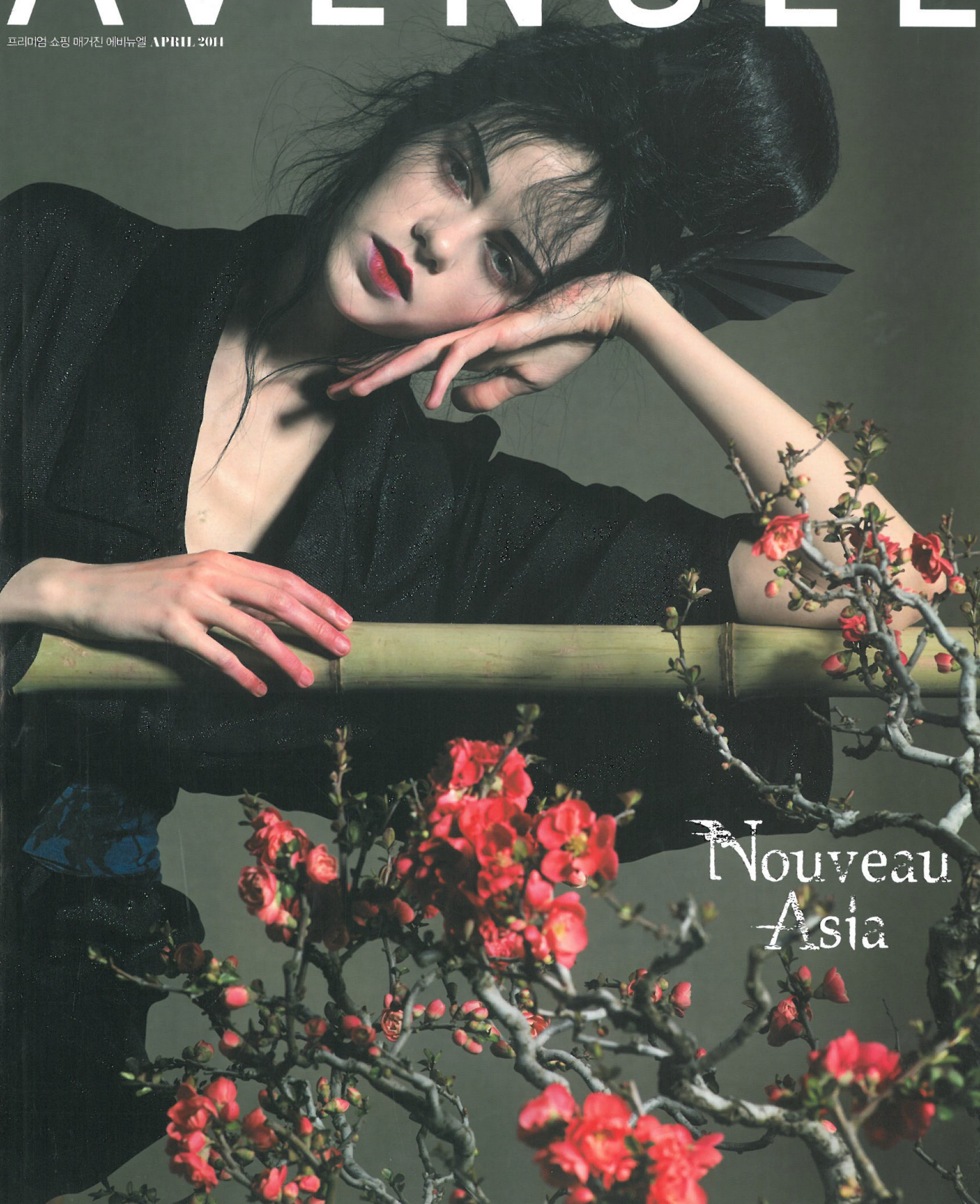


AVENUE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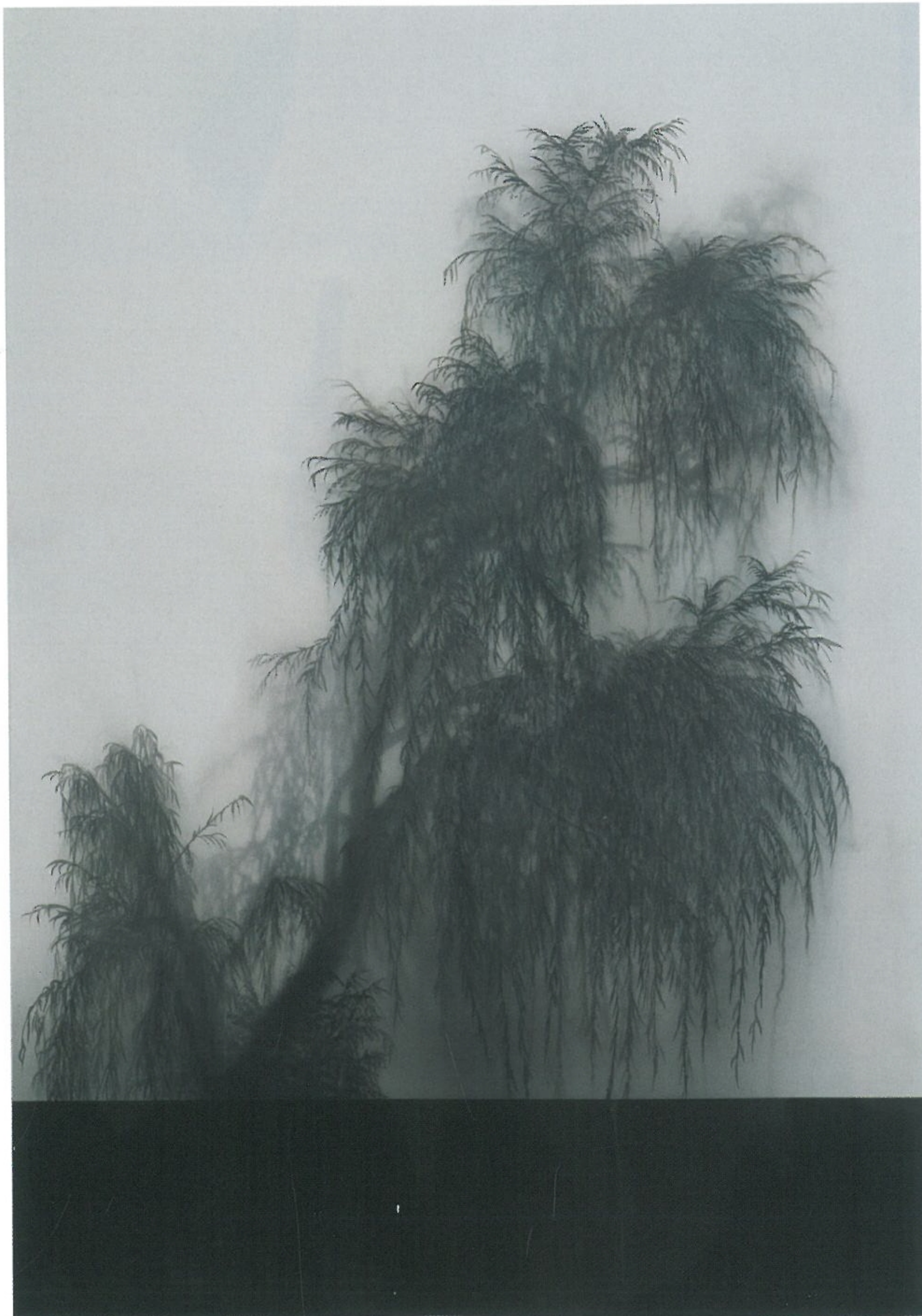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APRIL 2011



Nouveau
Asia

안개 저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다

등반객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막막하게 대기를 감싼 안갓속이다. 산을 오르다 짙은 안개를 만난다면 오직 멈춰 서는 것만이 답이다. 이기봉의 회화는 이른 아침 호숫가나 깊은 산속에서 발견될 법한 신비로운 안개 풍경을 담고 있다. 그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 물론 그 신비로운 여정 속엔 어디로도 발을 내디딜 수 없는 막막한 감정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이 풍경 속에서는 걷기보다 멈춰서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기봉의 작품에서 안개로 드러나는 습기는 사물과 공간의 경계면을 흐트러뜨리고, 주체의 시야를 흐리며, 물질의 부패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된다. 우리 삶이 앞을 더듬거리며 깨달음을 얻어가듯 안개는 인간의 삶을 본질로 인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시각적으로 처연하게 아름다운 이 장면은 궁극적으로 그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 ㄷ



이기봉 李基鳳, 2013年作_ 'The Permanent Differences', 188.5x128.5cm.